

자료제공 : 2023. 10. 24 (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
서울어린이대공원(동물복지팀)

공원여가정책과장	김 인 숙	02-2133-2010
공원협력팀장	박 정 옥	02-2133-2035
서울어린이대공원장	손 성 일	02-450-9301
동물복지팀장	조 경 옥	02-450-9366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4매

### 서울어린이대공원 얼룩말 ‘코코’ 안타까운 사망

- 올해 6월 반입된 ‘코코’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해 10.16일 새벽 못 견뎌
- 타동물원과 말전문병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자문·협력하여 치료병행  
→ 야생동물 특성상 증상발현이 늦고 질병의 진행 정도나 수술 등 예측이 어려워
- 향후 동물원 진료 및 사육관리 등을 포함한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

서울어린이대공원(원장 손성일)은 올해 6월에 반입되어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던 그랜트얼룩말 ‘코코’(암컷, 2022년 5월생)가 10월16일(월) 오전 6시 10분 돌연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다.

○ ‘코코’는 (그랜트얼룩말, ♀, 17개월령 2022.5.12.生)는 광주광역시 우치공원에서 2023.6.21. 어린이대공원으로 전입되었으며, 지난 3월에 탈출했던 세로(♂)와 함께 새내기커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.

코코(♀)와 세로(♂)는 6월 전입 이후 단계별 친화훈련 등 (단계별 서로간 체취 및 안면 익히기)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으며, 7월부터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다.

- 코코는 특이증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여 왔으나, 지난 10.11(수) 아침 복부팽대 및 기립이 어려운 상태가 확인되어 대공원 동물원 수의사와 사육사들이 진료와 처치를 하였으며 타동물원과 말전문 병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자문·협력하여 치료를 병행하였다.
- 밤낮으로 이어진 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코코의 체력과 수술감당 가능 여부 및 시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.15(일) 오후3시 전문가회의(수의사 5명) 끝에 말전문병원(이천) 수술을 결정하고 10.16(월) 새벽(04시반~06시)에 긴급 이송 하였으나 수술병원 도착 직후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다.
- 부검(10.16.) 결과, 사인은 산통에 의한 소결장 폐색 및 괴사로, 말의 산통(colic)은 위장관 운동의 이상으로 배에 경련이 오는 등의 증상에 인한 복통을 뜻한다. 말은 해부학적으로 장을 잡아주는 장간막이 잘 발달되지 않아 장이 쉽게 꼬이거나 움직일 수 있는 예민한 동물로 산통은 말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이다. 또한 빨리 달려야하는 특성으로 위가 작고 소화의 대부분이 대결장에서 이루어져 변비 산통도 발생하기도 한다.
- 대공원 측은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말 전문가 및 동물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.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인형 교수는 “질병 발생 후 야생동물임에도 최대한 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, 안타깝게도 야생동물 특성상 질병의 진행 정도나 수술 등 예측이 어려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”고 말했다.

- 말의 경우 임상증상, 진단 및 처치, 수술 시기 등이 좀 더 명확하나, 얼룩말의 경우 야생동물의 특성상 증상발현이 늦으며,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. ※ 수의학(말관련) 전문가 긴급자문회의 개최 (23.10.19)
  
- 증상이 있던 10.11(수) 전날에도 코코는 평상시처럼 방사장에서 특이사항 없이 시간을 보냈었다. 조경욱 동물복지팀장(수의사)은 “코코에게서 평소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담당사육사 최초 증상 확인 후 사망시까지 동물원 의료진들의 118시간의 헌신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다.” 고 말했다.
  
- 서울어린이대공원 손성일 원장은 “향후 동물원 진료 및 사육관리 등을 포함한 더욱 강화된 대책을 세우고, 전문가들의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렴·반영하여 개체수에 맞춰 동물원 면적을 넓히는 동물원 재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”라고 말했다.

**[별첨] 얼룩말 코코 사진**

